

1.45±0.31로 정상 대조군보다 증가되어 있었다(p<0.05).

3) 좌엽간내담관석만 있었던 7예에서는 R/LDR가 0.56±0.22로 정상 대조군보다 감소되어 있었다(p<0.05).

4) 좌우간엽에 모두 간내담관석이 있는 10예에서는 R/LDR가 0.95±0.12로 정상대조군과 통계학적 차이가 없었으나 RRR 1.21±0.14, LRR 1.32±0.25로 각각 정상치보다 증가되었다(p<0.05).

따라서 정량적 HIDA 스캔이 좌우엽 일측성 간내담관석증의 진단에는 물론 양엽성 간내담관석증의 진단에 보다 유용한 검사로 판정되며 수술후 경과관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사료된다.

28. Treatment Trial of Intrahepatic I-131-Lipiodol on Patients with Hepatocellular Carcinoma

*Department of Radi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Yonsei Cancer Center

***Division of Nuclear Medicine, Thomas Jefferson University Hospital, Phila, PA

H.S. Yoo*, J.T. Lee*, J.H. Suh*, D.I. Kim*
C.Y. Park, B.S. Kim**, C.H. Park***
M. Thakur***

An iodized oil such as Ethiodol or Lipiodol was selectively retained in the tumor vessels of the large hepatomas as well as in the small daughter hepatomas for long periods following the intra-arterial hepatic injection of such contrast material.

The specific aim of the study is to deliver a high internal radiation dose to hepatocellular carcinoma(HCC) in an attempt to control the disease.

We were able to replace a small fraction of the stable iodine(I-127) of the 37% iodine in Lipiodol by the I-131 with 100% exchange efficiency.

I-131 labeled Lipiodol was injected through the superselected tumor feeding artery under superselection or into the proper hepatic arterial level on patients who have malignant hepatomas confirmed by aspiration cytology.

I-131-Lipiodol was stable in vivo and no significant activity was noted in the thyroid, stomach, blood and urine after the injection. Only small fraction of radioisotope activity was noticed in the both side of lungs. Tumor to normal liver ratio was very high. Therefore, I-131-Lipiodol(or P-32-Lipiodol) will be effective delivering high internal radiation dose to the tumor while delivering small radiation doses to normal tissues.

Labeling, tumor dose calculation and preliminary findings will be presented.

29. ^{99m}Tc-Methylene Diphosphonate(MDP)

골스캔 중 비정상적인 연조직섭취를 보인 344예에 대한 분석

서울의대 내과

법희승·김순배·박석건·정준기

이명철·조보연·고창순

여러가지 골질환의 진단 및 악성종양의 전이유무를 판단하는데 있어 골스캔의 유용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골스캔제제가 골병변 뿐 아니라 연조직 병변에도 섭취된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다. 연자들은 비정상적으로 골스캔제제를 섭취하는 연조직병변에 대한 지식을 넓힘으로써 향후 골스캔을 이해하고 판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에 임하였다.

대상은 1981년 4월부터 1986년 3월까지 서울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시행한 ^{99m}Tc-MDP 골스캔 10,361건 중 비정상적인 연조직섭취를 보였던 344예(3.3%)였으며, 신장 및 비노기계에 방사성핵종의 저류만 보인 예는 정확한 의미의 연조직섭취로 볼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다. 연조직섭취의 판정은 주위 또는 반대편 연조직에 비하여 섭취의 정도가 월등히 증가된 경우만 선택하였는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344건 중 악성종양이 126건(36.6%), 양성종양이 5건(1.5%), 비종양성 연조직병변이 153건(44.5%), 그리고 연조직섭취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가 60건(17.4%)이었다.

2) 악성종양 중 연조직섭취율이 비교적 높은 종양은 신경아세포종(23.3%), 악성섬유성조직세포종(22.2%), 갑상선암(8.3%), 폐암(8.0%), 피부암(7.1%), 후두암(6.3%), 연조직육종(6.2%) 등이었고, 숫적으로는 폐암(40예), 유방암(17예), 연조직육종(14예) 등이 많았다.